

◀기쁜 우리 날들▶

화려한 휴가

김성국

설교준비를 마치고 긴장된 주일을 앞둔 어젯밤 자정쯤의 교회 사무실로 내 좋은 친구 차 목사가 한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설교준비 다 했냐는 서로의 인사에는 고생까나 했다는 위로와 이 집에서 벗어나 긴장없는 안식일을 맞고픈 자유로움에 대한 갈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대뜸 “오늘 오전에 아내와 함께 영화 ‘화려한 휴가’ 를 보고 왔다” 는 말을 하면서 ‘보면서 많이 울었다’ 는 말에 갑자기 막힌 가슴이 열리는 듯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눈물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를 위해서 겨우 남겨놓은 분량만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했던 죄스러움을 어둔 영화관에서 눈물로 사과한 친구가 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 친구와 나는 총학생회 임원을 함께하며 다음날 서울역에서 있을 “서울의 봄” 집회를 위해 허름한 여관에서 방새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젊음은 있으나 용기 없어 시대의 아픔을 그저 멀리서 바라다 보아야만 하던 우리들이 여기 살아있음을 알리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라 여겼습니다.

이제껏 나는 주변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처세술로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아픔을 기어이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온 친구가 있음에 고마웠고 그 날 죽어간 분들 앞에 눈물로서 미안하다고 말한 친구가 있어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래 친구야!

우리 그렇게 용기 없었던 일들 앞에 눈물이라도 흘리자구나.
아픈 당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되어줄 능력 없지만 함께 아파 할 줄은 안다고 그렇게라도 보여 주자구나.

요란한 5월의 행사도 지나간 지난 5월말, 참배객 한 사람 없는 광주민주화운동 공원묘지에 아내와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 쓸쓸히 세워져 있던 그들의 묘비명을 아내와 단 둘이 하나하나 읽으며 “미안합니다” 며 눈물 흘리고 돌아온 날이 있어 내 좋은 친구와 한 마음이였음을 이 또한 고마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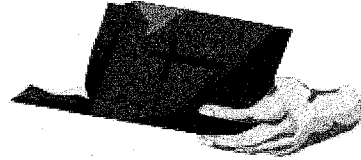


◀그뻘 그랬지 ▶ 가봉의 봉고 대통령 방한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인가로 혼동되던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가봉이란 나라가 있었음을 알게 된 국민의 방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과 외교전에서 지지 않기 위해 외국정상의 방문 때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이 양국의 국기를 들고 나가서 극진히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때 기아 자동차의 승합차를 봉고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대접 한 것이 지금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합차는 ‘봉고’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봉의 봉고인지 봉고의 가봉인지 혼동되던 그 시절이 어느새 무엇을 하려고 주방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8월 19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수도자의 소원



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인이라고 여겼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성인으로 여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를 가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다. 그대가 원하는 기적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게. 그대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셨네. 남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몸소 치료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죄인들을 감화시켜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덕행의 모범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그대의 덕행을 보고 그대를 본받게 말일세."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답답해진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바라는 것을 정 들어주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제 자신은 결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따라 행하기▶

담배에
술에
컴퓨터에 중독되지 마라
그러나 말씀에는 중독 되도 좋다.

◀인품따라 행하기▶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도 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Hymn	34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1(시편 142)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63장	다 같이
기도 Pray		백제성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76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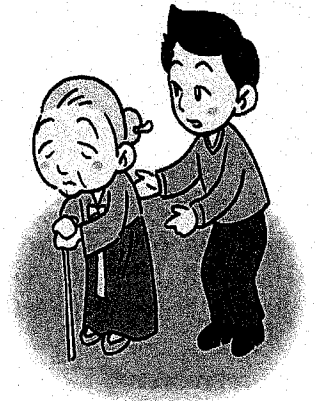
- 교우소식
<영주권 취득을 축하합니다> 김상영 집사
*감사한 마음 깊어 성가대원들과 피자 파티를 열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준비위원회의 5분 설명회
*우리 성전 우리 손으로 세워 하나님께 드리고픈 우리들의 마음과 준비위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 "Morning Alpha 성경공부" <장소> 교회사무실 <일시> 매주 토요일 7:30am.
*1기: 김혜옥, 박병민, 박상옥, 이기중, 이동술
*말씀공부 후 새알이 들어간 노란 호박죽으로 나눈 Breakfast는 영혼도 몸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0>
*Kiwi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찌 부지런한지 새벽기도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이른 Motorway에는 꼬리를 이은 차들이 도시의 가운데를 향해 몰려 들고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음을 감사하는 먼 훗날의 내 자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작한 시인들▶ 엄마의 런닝구

배한권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웃 입으나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 만하게
뚫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대지비 만하게 뚫어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짹 짹 찼다.

엄마는
와 이카노
너무 재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 입고
짜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200

총액: \$ 380,481.70

◆8월 예배위원◆

◆8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주 차	안 내
29	김반석	Gate	현관: 김순자 노은숙
5	노은숙	최현철 이광희	
12	박일영	주차장	성전일구:
19	백제성	서재오 최재학	임혜자
26	양경배		

주 일	모임 행사
5	3여 헌신예배(8) 구역예배(10)
12	광복기념주일 찬양간증집회(15)
19	
26	이삭줍기주일 남녀선교회월례회